

2015 한국 컴퓨터그래픽스 대상

김 명 희

(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)



한국의 컴퓨터그래픽스는 학문적으로 국제수준으로 성장하였고,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산업적으로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. 이러한 학문의 국제화와 다학제적인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, 한국 컴퓨터그래픽스 학계를 이끌어 온 김명희 교수를 2015년 한국컴퓨터그래픽스 대상 수상자로 선정한다.

김명희 교수는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에 재직하면서, 그래픽스 분야의 기반기술과 융합연구에 매진하였고, 세계최초 여성공과대학의 학장(2007~2009)을 역임하면서 전문공학인 양성을 위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. 1998년 컴퓨터그래픽스/가상현실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, 대학정보통신 연구센터사업(ITRC), 국가지정연구실사업(NRL), IT 핵심기술개발사업, 도약연구지원사업 등 다수의 대형국책과제를 수행해왔다. 특히, 가상·혼합현실 연구를 위해 국내 최초로 Virtual Table(1999)을 설치한 이래로, VirtualWall(2000) 구축, 국내대학 최초로 PC기반 4면 CAVE-like(2002) 시스템을 구축하였다.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IEEE TVCG, Computers & Graphics, Computer Animation and Virtual World 등의 국제적인 학술지에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, ACM SIGGRAPH에서 전시되었다. 활발한 학술활동 이외에도 김명희 교수는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회장(2004~2006)을 역임하면서 학회 발전을 이끌었다.

김명희 교수는 그래픽스/영상처리 기술을 의료 및 바이오 분야에 접목시키는 선구적 개척자 역할을 하였다. 1996년 한국과학재단 중점과제연구회로 한·독 첨단의료영상처리 연구회를 조직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과 독일간의 학문교류의 장을 이끌고 있다. 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와의 국제공동연구 및 현지 연구실 운영을 통해 한국과 스위스간의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였다. 이외에도 Computers & Graphics 저널의 Editor, Editorial Advisor를 역임하였고, Computerized Medical Imaging and Graphics 저널의 Editor 수행 등 수많은 국제활동을 통해 한국 그래픽스 학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. 김명희 교수는 IT와 의료융합분야, 분자영상 및 세포영상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공학 한림원 첫 여성 정회원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, 이 분야의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바이오·의료 원천기술개발사업(2015~2020)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었다.

김명희 교수가 보여준 새로운 연구분야에 대한 개척자적 도전정신과 지치지 않는 연구열정에 존경을 담아 자랑스러운 한국 컴퓨터그래픽스 대상을 수여한다.

* 이전 수상자: 2008년 신성용(KAIST), 2009년 김명수(서울대), 2011년 김창헌(고려대)